

이건희 회장, 삼성SDI 지분 매각

삼성증권 · 삼성화재 포함 970억원 ... 지배구조에 큰 영향 없어

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했다.

삼성SDI는 공시를 통해 이건희 전 회장이 39만9371주(1.18%)를 전량 매각했다고 발표했으며, 삼성증권도 6만7347주(0.1%)를, 삼성화재도 15만1565주(0.32%)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혀 이건희 전 회장의 전체 매각대금은 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건희 전 회장이 지분을 매각했지만,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 등으로 모두 27.78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삼성화재도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인이 18.64%를, 삼성SDI도 삼성전자 등이 26.22%의 지분을 유지하게 된다.

삼성그룹 관계자는 “세금 납부 등을 위한 자금마련 차원에서 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며 “지배 구조와는 관련이 없다”고 말했다.

이건희 전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(BW) 저가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,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12>